



## 천사무엘 | 한남대

### 1. 들어가는 말

구약성서는 신약성서와 함께 그리스도교에서 경전이자 정경으로 여겨져 왔고 신앙과 생활의 기준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신약성서가 완성되기 전부터 구약의 책 대부분은 그리스도교 안에서 최고의 권위를 지닌 책으로 인정받았지만, 그 범위는 오랫동안 유동적이었다. 신약성서의 27권이 비교적 일찍부터 정경으로 인정된 반면, 구약의 범위는 오늘날도 교회 전통에 따라 서로 다르게 규정되고 있다. 예를 들면, 개신교회는 종교개혁 전통을 따라 39권을 구약정경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로마 가톨릭교회는 제2경전을 포함하여 총 46권을, 그리고 그리스 정교회와 에티오피

---

1) 본 논문은 2013년도 한남대학교 교비학술연구비에 의해 지원되었음.

피아 교회는 위경의 일부도 정경에 포함시키고 있다.<sup>2)</sup>

구약성서의 범위가 교회 전통에 따라 다른 것은 그 형성과정이 단순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교회가 분열되기 이전에 구약정경의 범위가 확정되지 않았고, 분열 이후에는 각기 다른 교회 전통에 따라 그 범위가 각각 다르게 자리매김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 39권을 구약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개신교회는 19세기 말부터 구약성서가 세 단계에 걸쳐서 정경으로 형성되었다고 여겨왔다. 즉 오경이 에스라-느헤미야 시대인 기원전 400년경에 정경으로 확정되었고 예언서는 적어도 기원전 200년까지 정경으로 완성되었으며 성문서는 기원후 90년경에 얌니아(Jamnia) 회의에서 정경으로 결정되었다고 간주했다.<sup>3)</sup> 이것은 유대교 전통에서 구약 39권이 적어도 기원후 90년경까지는 정경으로 확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이론은 오늘날도 구약 개론서 등에서 여전히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sup>4)</sup>

구약정경이 세 단계에 걸쳐서 형성되었고, 기원후 90년경 얌니아 회의에서 최종 결정되었다는 이론은 사해사본의 발견 이후 의문시 되었다. 왜냐하면 사해사본에서 에스더서와 느헤미야서를 제외한 다른 모든 구약의 책들과 그 책들의 다양한 사본들이 발견되었다는 것은 정경형성의

---

2) James VanderKam/Peter Flint, *The Meaning of the Dead Sea Scrolls: Their Significance for Understanding the Bible, Judaism, Jesus, and Christianity* (New York: HarperCollins, 2002), 157–60.

3) 바리새파 랍비였던 요한 난 벤 자카이(Johanan ben Zakai, 약 30년경–90년)는 기원후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후 이곳에 학교를 세웠고 이를 중심으로 소위 “얌니아 회의”가 이곳에서 모였다.

4) 민영진 외, 『구약성서개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 121; 베르너 H. 슈미트, 『구약성서 입문』 (차준희/채홍식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26. 원제는 Werner H. Schmidt, *Einführung in das Alte Testament* (Berlin: Walter de Gruyter, 1995); 노만 K. 갓월드, 『히브리 성서 1: 사회-문학적 연구』 (김상기 옮김),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7), 151. 원제는 Norman K. Gottwald, *Hebrew Bible: A Brief Socio-literary Introduction* (Philadelphia: Fortress, 1985). 이에 대한 전반적인 비판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B. S. Childs,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as Scripture* (Philadelphia: Fortress, 1979), 52–54; E. E. Ellis, *The Old Testament in Early Christianity: Canon and Interpretation in the Light of Modern Research* (Grand Rapids: Baker, 1991), 37–50. 레빈에 의하면, 구약성서는 고대 유대교에서 생겨났다는 점에서 기독교의 책이 아니지만, 원시 기독교회가 이를 아주 당연하게 자신의 유일한 성서로 간주하였다는 점에서 기독교의 책이다. 레빈, “약속과 구약정경,” 『구약논단』 24 (2007/6), 10–32.

과정이 단계별로 일관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sup>5)</sup> 더군다나 오늘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경”(canon) 및 “정경화”(canonization)의 개념은 후대에 교회 안에서 발전된 개념이어서 유대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 구약성서의 형성과정에 적용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sup>6)</sup>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논문은 구약정경의 세 단계 형성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구약정경의 형성과정을 재고해 보고자 한다.

## 2. 얌니아 회의 이론

19세기 말부터 구약 정경 형성의 “표준 이론”으로 전파된 소위 “얌니아 회의 이론”은 기원후 90년 얌니아에서 모인 유대 랍비들의 모임이 정경을 결정하는 회의였다는 가설에 근거했다. 이 가설을 처음 주장한 사람은 유대 역사학자 그레츠(H. Graetz)였다.<sup>7)</sup> 그는 오경과 예언서가 기원전 약 400년경에 소위 느헤미야 회의에서 완성되었고, 성문서는 기원후 65년 유대 랍비 회의에서 대부분 확정되었다가 기원후 90년 얌니아 회의에서 마지막 두 권, 즉 전도서와 아가서가 포함됨으로써 확정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쉬나에 근거해서 기원후 90년 얌니아에서 유대 정경이 확정되었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기원후 189년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그의 이러한 주장은 그리스도 교회의 정경화 작업이 공식 회의에서 결정된 것처럼, 유대교의 정경도 공식 회의에서 결정되었다는 가설

---

5) Eugene Ulrich, *The Dead Sea Scrolls and the Origins of the Bible* (Grand Rapids: Eerdmans, 1999), 17-33.

6) Philip R. Davies, *Scribes and Schools: The Canonization of the Hebrew Scriptures*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8), 169; James A. Sanders, "The Scrolls and the Canonical Process," P. Flint/J. C. VanderKam (eds.), *The Dead Sea Scrolls After Fifty Years: A Comprehensive Assessment*, Vol. 2 (Leiden: Brill, 1999), 3.

7) H. Graetz, *Kohélet oder der Salomonische Prediger* (Leipzig : C.F. Winter, 1871), 147-73.

에 근거했다.

그레츠의 주장은 구약성서가 세 단계에 걸쳐 형성되었고, 얀니아 회의에서 최종 결정되었다는 이론으로 발전되었다.<sup>8)</sup> 이와 관련하여 형성된 라일(H. E. Ryle)의 이론은 구약정경 형성의 소위 “3단계 이론”의 표준 모델이 되었다.<sup>9)</sup> 라일에 의하면, 오경은 에스라 시대인 기원전 5세기에 정경으로 확정되었는데 기원전 432년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분열되기 이전이었다.<sup>10)</sup> 그는 또한 구약 외경에 속하는 집회서에 근거하여 예언서가 적어도 기원전 180년 이전에 정경으로 확정되었다고 주장했다.<sup>11)</sup> 그는 성문서의 대부분이 마카비 시대 초기(기원전 160-140년)에 이미 “오경과 예언서”에 첨가되었고, 기원전 90년 얀니아 회의 혹은 그와 유사한 랍비들의 회의에서 결정되었다고 주장했다.<sup>12)</sup> 그는 얀니아 회의의 역사성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별로 없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이 회의가 결국 성문서의 정경을 확정하는 그리하여 구약정경이 완성되는 상징적 사건으로 받아들였다.<sup>13)</sup> 그는 필로, 요세푸스, 신약성서 등을 근거로 구

---

8) F. Buhl, *Canon and Text of the Old Testament*, tran. J. Macpherson (Edinburgh: T & T Clark, 1892; originally published in German in 1885), 24. 그는 얀니아 회의에서 구약 정경이 최종 결정되었다는 이론을 널리 알리는데 기여했다; 그러나 월데보어는 그레츠의 주장이 근거 없는 추측이라고 반박한다. G. Wildeboer, *The Origin of the Canon of the Old Testament*, tran. B. W. Bacon (London: Luzac and Co, 1895; originally published in German in 1889 for the 1st edition and in 1891 for the 2nd edition), 148-50. 그는 “성문서”가 기원후 200년경에 완성되었고 그리스도교회의 교부들이 그 명칭을 붙였다고 주장했다. 윗글, 146-47; Cf. Karel van der Toorn, *Scribal Culture and the Making of the Hebrew Bibl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09), 234-35; Stephen B. Chapman, “Modernity’s Canonical Crisis: Historiography and Theology in Collision,” M. Saebø (ed.), *Hebrew Bible Old Testament: The History of Its Interpretation*, Vol. 3/1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13), 680.

9) H. E. Ryle, *The Canon of the Old Testament: An Essay on the Ground Growth and Formation of the Hebrew Canon of Scripture* (London: Macmillan, 1892); S. B. Chapman, 윗글, 682ff.; “What Are We Reaching?: Canonicity and the Old Testament,” *Word & World* 29/4 (2009/Fall), 337; R. T. Beckwith, “Canon of the Bible,” *Dictionary of Biblical Interpretation*, Vol. 1 (Nashville: Abingdon, 1999), 162.

10) H. E. Ryle, 윗글, 93.

11) 윗글, 109-113.

12) 윗글, 172-73.

13) 윗글, 172.

약정경이 적어도 기원후 약 100년경까지는 유대 공동체에서 확정되었다고 보았다.<sup>14)</sup> 그는 유대인들의 정경 결정이 그리스도 교회가 구약을 정경으로 공식 결정한 것에 앞선다고 주장했다.<sup>15)</sup>

라일이 제시한 구약 정경 형성의 “3단계 이론”은 39권만을 구약정경으로 받아들인 루터와 칼뱅 등 종교개혁자들의 주장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했다.<sup>16)</sup> 그들은 유대교 전통을 따르면서 외경 등을 배제한 구약정경을 주장했는데, 이들의 견해를 옹호하는데 기여했던 것이다. 이것은 이 이론이 개신교회 안에서 설득력을 얻고 폭넓은 지지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사해 사본의 발견 이후 이 이론은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되었다. 예를 들면, 선드버그(A. C. Sundburg)는 구약정경이 적어도 기원후 1세기 말까지 확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sup>17)</sup> 그에 의하면, 예수와 사도들이 유대 전통으로부터 오경과 예언서를 확정된 것으로 받아들였지만 성문서와 외경, 제이 경전 등이 포함된 나머지 부분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있었다. 이것은 초대 교회의 구약성서가 유대교의 정경이 아니라 제이 경전 등을 포함한 그리스도교 자체의 정경이라는 것을 의미했다.

---

14) 윗글.

15) 윗글, 179.

16) John Barton, "Canon," *A Dictionary of Biblical Interpretation* (Philadelphia: Trinity Press International, 1990), 102.

17) A. C. Sundburg, Jr., "The Old Testament of the Early Church," *Harvard Theological Review* 51 (1958), 205–26; *The Old Testament of the Early Church*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4), 194–99; "The 'Old Testament': A Christian Canon," *Catholic Biblical Quarterly* 30/2 (1968), 143–55. 그는 "알렉산드리아 정경"(Alexandrian Canon)이 존재하는가에 대해서도 의문시하면서 헬라 문화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알렉산드리아 정경을 그리고 팔레스틴의 유대인들은 팔레스틴 정경을 발전시켰다는 주장을 반박한다. 그에 의하면, 칠십인역에 있는 외경이나 제이 경전 대부분은 알렉산드리아가 아니라 팔레스틴에서 히브리어나 아람어로 쓰였다는 것은 팔레스틴 유대교 안에 헬라적인 요소가 일반화되었다는 것과 팔레스틴 유대인들의 언어가 아람어와 헬라어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그는 헬라어를 사용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팔레스틴에 많이 살고 있었고 칠십인역은 기원후 1세기에 팔레스틴 유대교에서 널리 사용되었다고 주장한다. 오늘날 알렉산드리아 정경 이론은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 즉, 팔레스틴 정경에 외경 등을 첨가하여 알렉산드리아 정경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Julio Trebolle, "Canon of the Old Testament," *New Interpreter's Dictionary Bible*, Vol. 1 (Nashville: Abingdon, 2006), 552.

루이스(J. P. Lewis)는 얄니아 회의 이론의 허구성을 지적했다.<sup>18)</sup> 그는 얄니아 회의의 근거로 여겨지는 랍비문서들을 검토하면서 이 회의가 구약 정경을 최종 결정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언급했다. 즉, 기원후 90년경 얄니아에서 랍비들의 회의가 열린 것은 맞지만 그것은 어느 책을 정경의 범주에 넣을지 결정하는 그리스도 교회의 회의와는 달리 정경을 결정하는 모임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라이만(S. Z. Leiman)도 구약 정경이 “얄니아 회의”에서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고 동의했다.<sup>19)</sup> 그러나 그는 기원전후 1세기에 대부분의 유대교 종파가 확정된 정경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마카비 시대에 이미 결정되었다고 주장했다.<sup>20)</sup>

오늘날 구약 정경이 기원후 90년 얄니아에서 최종 결정되었다는 이론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 그 이유는 첫째로, 얄니아 회의를 마치 그리스도 교회의 권위 있는 회의로 여겼다는 것이다. 그리스도교는 4세기 초에 국가 종교가 된 이후에 교회의 회의를 통하여 중요 사항을 결정했다. 정경의 범위도 이 회의들에서 확정되었다. 그러나 바리새파 랍비들이 중심이 된 얄니아 회의는 그런 정도의 권위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 이것은 그레츠 등 얄니아 회의 이론가들이 정경을 결정하는 후대의 그리스도 교회의 회의 개념을 랍비 회의에 적용하여 기원후 90년 얄니아 회의를 마치 구약의 정경을 최종 결정하는 권위 있는 회의로 잘못 해석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소위 “얄니아 회의”는 공식적인 “회의”(council)가 아니라 “학교” 혹은 “학파”(school)의 모임이라는 것이다.<sup>21)</sup>

18) J. P. Lewis, "What Do We Mean By Jabneh?" *Journal of Bible and Religion*, 32 (1964), 125-32.

19) S. Z. Leiman, *The Canonization of Hebrew Scripture: The Talmudic and Midrashic Evidence* (Hamden: Archon Books, 1976), 134-35.

20) 이 견해에 동의하는 학자들은 다음과 같다: R. Beckwith, *The Old Testament Canon of the New Testament Church* (Grand Rapids: Eerdmans, 1985), 406; P. R. Davies, *윗글*, 182. 그러나 사해사본이 보여주는 본문의 다양성과 “오경과 예언서” 본문의 불확정성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한다.

21) S. B. Chapman, *윗글*, 345.

둘째로, 얍니아 회의 이론의 표준적 근거로 여겨지는 미쉬나 아다임(Mishnah Yadayim) 본문(3:5)의 해석이 과장되었다는 것이다. 이 본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든 거룩한 경전들은 손을 부정하게 만든다. 아가서와 전도서는 손을 부정하게 만든다. 랍비 유다가 말한다: ‘아가서는 손을 부정하게 하지만, 전도서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랍비 요세가 말한다: ‘전도서는 손을 부정하게 하지 않지만, 아가서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랍비 시므온이 말한다: ‘전도서는 삼마이 가문의 관대한 규정들과 힐렐 가문의 엄격한 규정들 가운데 있다.’ 랍비 시므온 벤 아짜이가 말했다: ‘나는 72명의 장로들의 증언에서 나온 전승을 들었는데, 그들이 랍비 엘리아잘 벤 아자리아를 그 학교의 교장으로 지명했을 때였다. 그것은 아가서와 전도서가 손을 부정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랍비 아키바가 말했다: ‘하늘이 금하셨다! 어떠한 이스라엘 사람도 아가서가 손을 부정하게 만들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아가서에 대해서 논쟁하지 않았다. 모든 시대는 아가서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시대만큼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 모든 경전들은 거룩하나 아가서는 거룩한 것들 중에서 가장 거룩하다. 그러므로 논쟁이 있었다면 전도서에 대해서만 논쟁을 했다.’ 벤 아짜이에 의하면, 랍비 요한난 벤 여호수아는 랍비 아키바의 장인의 아들이었는데 이렇게 말했다: ‘그들은 그렇게 논쟁했고 그렇게 결정했다.’”<sup>22)</sup>

본문은 아가서와 전도서가 경전(scripture)으로 여겨질 수 있는지에 대한 랍비들의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서 이 두 책이 손을 부정하게 한다는 것은 제의적인 표현으로 다양하게 해석되지만, 그 의미는 이 책들이 경전에 속한다는 것이 분명하다.<sup>23)</sup> 즉 손을 부정하게 하는 책을

22) Jacob Neusner, *The Mishnah: A New Translatio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8), 1127.

23) 이 표현의 다양한 해석에 대해서는 S. Z. Leiman, 윗글, 102-104; S. Martin, *An Introduction to Judaic Thought and Rabbinic Literature* (Westport: Praeger, 2007), 11-13; P. R. Davies, 윗글, 171

경전으로 여긴다는 뜻이다. 이것은 기원후 90년 암니아에 모인 랍비들이 전도서와 아가서가 경전에 속해야 하는지 논의했고, 랍비 아키바의 견해에 따라 이 두 책이 경전임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구약 37권이 이미 경전으로 결정되었고, 이 회의에서 나머지 두 권이 경전으로 추가되어 구약 39권이 정경으로 최종 확정되었다는 증거는 없다. 또한, 이 회의에 참여한 랍비들이 구약정경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는 증거도 없다. 그들은 아가서와 전도서가 힐렐과 샴마이 시대, 즉 그들보다 앞선 시대의 현자들(sages)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경전으로 여겼는지를 확인하려고 했을 뿐 자신들이 그 책들을 정경으로 확정하려는 의도는 없었다.<sup>24)</sup> 이상과 같이 암니아 회의는 구약정경의 세 단계 형성이론을 지지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없다.

### 3. 오경과 예언서의 정경화 이론

라일이 제시하는 구약정경의 3단계 형성 이론은 첫 번째 정경인 “오경”의 형성과 두 번째 정경인 “오경과 예언서”의 형성을 구분하는 기준을 사마리아인들이 분리되어 나갔다고 여겨지는 기원전 432년으로 삼는다.<sup>25)</sup> 사마리아인들은 오경만 경전으로 여겼고 예언서는 경전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 이론은 “오경과 예언서”의 정경화 시

을 보라.

24) E. E. Ellis, 윗글, 40; Michael V. Fox, *Ecclesiastes* (Philadelphia: The Jewish Publication Society, 2004), xiv; 롤란드 해리스, 「구약서론 1」(류호준/박철현 옮김),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4), 349. 원저는 Roland K. Harrison,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1969). 소위 암니아 회의 이론에 대한 비판은 이와 관련된 주장들의 설득력을 잃게 만들었다. 예를 들면, 암니아 회의에서 랍비들이 팔레스틴 정경을 확정된 것은 반그리스도교적인(anti-Christian) 혹은 반묵시문학적인(anti-apocalyptic) 결정이라는 주장이나 그리스도 교회는 암니아 회의에서 결정된 정경을 확대하여 즉 외경 등을 포함하여 구약정경을 확정했다는 주장 등이다. B. S. Childs, 윗글, 65-66; A. C. Sundberg, Jr., "The Bible Canon and the Christian Doctrine of Inspiration," *Interpretation* 29 (1975), 355-56. 그러나 기원후 1세기 말경 유대 랍비들이 경전에 대해 논의했던 것은 당시 일부 유대인들이 신약의 책들을 경전으로 여기려했던 것에 대한 반발이었다고 볼 수 있다. Julio Trebolle, 윗글, 556.

25) H. E. Ryle, 윗글, 93; S. L. Leiman, 윗글, 17.



기를 두 공동체의 분리 이후로 여긴 것이다. 만약 그 분리 이전에 예언서가 정경으로 인정되었다면 사마리아인들의 정경에 예언서도 포함되었다는 것이 이 견해를 주장하는 학자들의 추측이다. 이러한 주장은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의 분리가 사마리아인들이 그리심 산에 성전을 건축한 사건을 기점으로 일어났다는 가설에 근거한다. 그러나 최근 연구 결과는 이 두 그룹의 분리가 그리심 산의 성전건축으로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성서 시대부터 점진적으로 발전되어오다가 적어도 헬라시대 이후에 일어났다는데 대부분 동의한다.<sup>26)</sup>

예를 들면, 퍼비스(J. D. Purvis)는 이 두 그룹의 분리가 그리심산의 성전건축과 함께 이루어졌다는 어떠한 근거도 없으며 오히려 기원전 128년 존 힐카누스(John Hyrcanus)가 그리심산의 성전을 파괴한 사건과 함께 결정적으로 일어났다고 주장한다.<sup>27)</sup> 크라운(A. D. Crown)은 그들의 분리가 기원후 130-135년에 일어났던 대반란사건(The Great Revolt) 이후에야 비로소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sup>28)</sup> 이것은 예언서가 사마리아인들의 분리 이전에 이미 형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sup>29)</sup>

다른 한편, 라일의 표준 이론은 예언서가 정경으로 형성된 시기가 기원전 3세기말 이전이며 적어도 기원전 180년 이전이라고 주장한다.<sup>30)</sup> 왜냐하면 집회서 44-49장은 예언서에 나오는 사건들과 인물들을 언급할 뿐만 아니라 12권의 소예언서를 하나의 단위로 여기기 때문이다

26) L. L. Grabbe, *Judaism from Cyrus to Hadrian, Vol. 2: The Roman Period* (Minneapolis: Fortress, 1992), 507.

27) James D. Purvis, "The Samaritans and Judaism," R. A. Kraft/G. W. E. Nickelsburg (eds.), *Early Judaism and Its Modern Interpreters* (Philadelphia: Fortress, 1986), 89-90; *The Samaritan Pentateuch and the Origin of the Samaritan Sect*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8), 5; Cf. J. Treballe, *윗글*, 552; R. J. Coggins, *Samaritans and Jews: the Origins of Samaritanism Reconsidered* (Atlanta: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75).

28) A. D. Crown, "Redating the Schism between the Judaeans and the Samaritans," *The Jewish Quarterly Review*, LXXXII 1-2 (July-October, 1991), 17-50.

29) J. VanderKam/P. Flint, *윗글*, 169.

30) H. E. Ryle, *윗글*, 119-123.

(49:10).<sup>31)</sup> 더군다나 기원전 132년에 집회서 저자의 손자가 쓴 역자 서문은 유대 문헌 중 처음으로 “오경과 예언서”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당시에 이 두 부류의 책들이 정경화 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여겼다.<sup>32)</sup> 라일은 이를 지지하는 견해로 다니엘서의 저작 연대를 제시했다.<sup>33)</sup>

유대전승에 따르면, 다니엘서는 예언서에 속하지 않고 성문서에 속한다. 또한, 대부분의 역사비평학자들은 다니엘서가 기원전 약 165년경에 완성되었다는데 동의한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에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재해석하는 내용이 나오고, 이 예언의 내용이 당시의 정경으로 여길 수 있는 “거룩한 책”(9:2)에 들어있다고 표현한다. 라일은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다니엘서 이전에 예언서가 이미 정경으로 형성되었다고 주장했다.<sup>34)</sup> 따라서 그는 “오경과 예언서”가 적어도 기원전 200년경까지는 유대교 안에서 정경으로 형성되었다고 여겼다.

라일이 제시한 “오경과 예언서”의 정경화 이론은 사해사본의 발견으로 더 이상 지지를 받기 어렵다. 초기 유대교에서 “예언서”라는 칭호를 가진 일련의 책들이 종파마다 다르게 평가되었기 때문이다. 즉, 사마리아인들과 사두개파는 “예언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바리새파, 쿰란공동체, 초기 기독교 공동체 등은 “예언서”에 종교적인 권위를 부여했다.<sup>35)</sup> 예를 들면, 쿰란공동체의 4QMMT는 기원전 150년경에 쓰인 것으로 여겨지는데, “모세의 책과 예언자들의 책”(4Q398), “모세의 책과 예언자들과 다윗의 책”(4Q397)이라고 언급한다. 또한 기원전 100년경의 것으로 추정되는 「공동체 규율」(1QS)에 “모세와 그의 모든 종 예언자

31) 윗글, 109-112.

32) 윗글, 113.

33) 윗글, 112.

34) 윗글.

35) E. Ulrich, 윗글, 20. 하스몬 왕조와 사두개파는 말라기 이후에 예언이 중지되었다고 여겼다(마카베오상 4:46; 14:41). 그러나 쿰란공동체와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예언이 계속되고 있다고 믿었다.

들”(1.1-3), 그리고 기원전 100-75년경의 것으로 여겨지는 「다마스쿠스 문서」(CD)에 “율법서...예언자들의 책”(7.15-18)이라는 표현도 나온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사고를 반영하는 누가복음은 “모세의 율법, 예언서 그리고 시편”(24:44)이라고 표현한다. 이것은 이들 공동체가 “예언서”를 권위 있는 문서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쿰란공동체의 문서나 신약성서에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라는 표현이 나오지만,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경(canon)이나 경전 (scriptures)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또한, 오늘날의 “오경과 예언서”의 형태와 같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해사본에서 “예언서”를 언급한 내용을 살펴보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sup>36)</sup>

첫째로, 쿰란공동체가 언급하는 “예언서”의 범주에 어떤 책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분명하지 않다. 예를 들면, 「마지막 날의 해석」(4Q174)은 “다니엘 예언자의 책”이란 표현을 쓴다(2:3).<sup>37)</sup> 쿰란공동체의 성서해석으로 여겨지는 페샤림(Pesharim)에서는 시편을 예언으로 이해한다(4Q171; 4Q173).<sup>38)</sup> 이것은 시편의 저자를 다윗으로 여기면서 그를 예언자로 간주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쿰란공동체는 희년서(Jubilees)와 에녹서(Enoch) 등도 경전 혹은 권위 있는 책으로 여기면서 인용하고 있는데, 달력과 절기를 계산할 때 이를 따랐다. 신약성서도 에녹 1서를 권위 있는 책으로 여기면서 인용하고 있다.

둘째로, 쿰란공동체가 언급하는 “예언서”의 순서가 오늘날 마소라 사본의 순서와 같은지도 분명하지 않다. 예를 들면, 전기 예언서의 경우, 이야기의 역사적인 구조 때문에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서의 순서로 되었을 것이라 추정된다. 그러나 후기 예언서의 경우, 그 순서

36) 윗글, 20-22; J. VanderKam/P. Flint, 윗글, 169-72 참조.

37) 마태복음 기자(24:15)나 요세푸스(‘유대고대사’, 10.267이하)도 다니엘을 예언자라고 부른다.

38) 신약성서도 시편을 예언으로 여기면서 해석한다(눅 24:44).

가 다양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원후 4-5세기 탈무드 전승에서는 예언서의 순서가 예레미야, 에스겔, 이사야 등으로 나오기도 한다.<sup>39)</sup> 아마도 예언서를 하나의 책 묶음으로 여기는 것이나 그 순서를 정해진 것으로 여기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왜냐하면 오늘날과는 달리 당시에는 각각의 책들이 두루마리 형태로 되어 있었고, 하나의 묶음으로 만든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sup>40)</sup>

셋째로, 사해사본에서 발견된 예언서 각 책의 내용들을 비교해 볼 때, 오늘날 우리의 예언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다는 것은 분명하다. 예를 들면, 여호수아서는 다양한 종류의 사본이 있었던 것 같다. 사무엘서의 일부 본문은 서로 다른데,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삼상 17-18장)의 경우 두 종류가 발견된다.<sup>41)</sup> 예레미야서도 두 종류의 본문이 있는데, 4QJer b는 칠십인역처럼 초기의 본문을 반영하며 마소라 본문보다 더 짧다.

다른 한편, “모세의 율법”이라는 표현도 오늘날 우리가 정경으로 가지고 있는 “오경”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 “모세의 율법”이 오늘날의 “오경”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4QpaleoExod m의 발견은 초기 유대교에서 출애굽기 본문이 두 종류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나는 마소라 본문에서 발견되는 형태이고, 다른 하나는 사마리아 오경과 유사한 형태이다. 4QNum b의 발견 역시 민수기 본문이 다양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신명기도 다양한 형태의 본문이 있었다. 또한, 「성전문서」(Temple Scroll)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전건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새 토라로 여겨졌다. 아람어로 쓰인 창세기 외경(Genesis

39) “우리의 지도자는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예언서의 순서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예레미야, 에스겔, 이사야, 그리고 소예언서이다”(Baba Bathra, 14b).

40) 윗글, 19-20.

41) D. Barthélemy, D. W. Goodings, J. Lust, and E. Tov., *The Story of David and Goliath: Textual and Literary Criticism: Papers of a Joint Research Venture*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86).

Apocryphon)은 창세기의 내용을 재언(retelling)하고 있는데, 에녹, 라멕, 노아와 그의 아들들, 아브라함의 삶을 다루고 있다. 4QMMT와 다마스쿠스 문서도 레위기의 법을 재해석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쿰란공동체에서 “모세의 율법”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의 범주가 종파마다 다르게 이해되었고, 오늘날의 “오경과 예언서”와 일치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4. 성문서의 형성 이론

라일이 제시한 표준 이론에 의하면, 구약정경의 세 번째 그룹인 성문서가 형성된 과정의 가장 오래된 흔적은 집회서 서문에서 찾아 볼 수 있다.<sup>42)</sup> 기원전 약 132년에 이집트에서 이 책을 헬라어로 번역한 벤 시라의 손자가 쓴 서문에는 “율법서와 예언서와 그 뒤를 이은 후대의 저서들,” “율법서와 예언서와 우리 조상들이 남긴 다른 저서들,” 그리고 “예언서와 그 외의 다른 저서들, 심지어는 율법서”라는 표현이 나온다. 여기에서 “그 뒤를 이은 후대의 저서들,” “우리 조상들이 남긴 다른 저서들,” 그리고 “그 외의 다른 저서들”이라는 표현을 라일은 세 번째 그룹의 정경인 성문서가 형성되는 과정을 나타낸다고 추정했다.<sup>43)</sup> 그는 성문서 중 가장 중요한 책인 시편이 마카비 시대에 가장 먼저 경전의 지위를 얻었고, 이후 다른 책들이 고려되었다고 주장했다.<sup>44)</sup> 그에 의하면, 성문서 형성과정의 흔적은 누가복음 24장 44절의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이라는 표현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시편”은 성문서 전체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만을 지칭한다고 보았다.<sup>45)</sup> 예수시대에는 구

42) H. E. Ryle, *율글*, 119.

43) *율글*, 119-20.

44) *율글*, 127.

45) *율글*, 150-51. 여기에서 언급하는 “시편”이 성문서 전체를 나타낸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J. Treballe, *율글*, 558.

약정경의 세 가지 분류는 알려져 있었지만, 그 마지막 부분인 성문서는 아직 완전히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라일은 구약정경의 형성과정을 논할 때 자주 언급되는 필로의 「명상의 삶에 대하여」(On the Contemplative Life)도 구약정경이 세 부분으로 형성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sup>46)</sup> 이 책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근처 마레오티스(Mareotis) 호수 부근에서 공동생활을 하면서 예배와 명상에 심취하면서 사는 유대인 그룹 थे라피우테(Therapeutae)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경전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각자의 집에는 성소 혹은 밀실이라고 불리는 거룩한 방이 있고 그들은 이곳에 들어가서 성스러운 삶의 신비를 접하게 된다. 그들은 마실 것이나 먹을 것이나 육체의 필요를 위해서 필요한 다른 어떤 것도 그곳에 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나, 율법과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서 전달된 예언, 그리고 시편과, 지식 및 경전을 조성하고 완전케 하는 다른 어떤 것들은 가지고 들어간다”(25).

라일은 여기에 나오는 “율법과... 예언”을 “오경과 예언서”로, 그리고 “시편... 다른 어떤 것”을 성문서에 대해서 언급한 것으로 여겼다. 그러나 그는 이 책이 필로의 것인지에 대한 진위 논란이 있기 때문에 기원후 1세기 구약정경 형성의 증거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필로가 오경만이 정경이자 하나님의 영감이 반영된 것으로 여겼고, 외경의 정경성은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라일은 에스드라스 이서를 성문서의 실제적인 완성을 언급하는 최초의 문서라고 지적했다.<sup>47)</sup> 에스라에게 내린 하나님의 계시의 형태로 쓰인 이 책에 의하면, 에스라는 다섯 명의 서기관들에게 자기의 입에서 나오

---

46) H. E. Ryle, 윗글, 149-50.

47) 윗글, 158.

는 말씀을 기록하게 했다.

“사십일이 지났을 때 가장 높으신 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처음 쓴 24권을 공개해서 유식한 사람과 무식한 사람이 읽게 하자. 그러나 마지막에 쓰인 70권은 너의 백성들 중 지혜자들에게 주기 위해서 보존하라. 왜냐하면 그 안에는 이해의 샘, 지혜의 샘, 지식의 강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그렇게 했다”(14:45-48).

여기에서 사람들에게 공개할 수 있는 “24권의 책”을 라일은 구약정경의 책들을 언급한 최초의 숫자로 이해했다. 이것은 기원후 1세기 말경에 구약정경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라일에 의하면, 성문서를 포함한 구약정경의 형성에 대한 더욱 분명한 증거는 요세푸스의 「아피온 반박문」(1.37-42)에서 찾아볼 수 있다.<sup>48)</sup> 여기에서 요세푸스는 유대인들의 고대 역사 기록의 진실성을 변호하고 있다.

“우리는 서로 일치하지 않는 모순된 책들을 많이 소유하고 있지 않다. 정당하게 인정된 우리의 책들은 단지 22권이며 모든 시대의 기록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 중 5권은 모세의 책인데, 율법과 인간의 탄생에서부터 율법수여자의 죽음까지 전통적인 역사로 구성되어 있다. 이 기간은 3천년에 약간 못 미친다. 모세의 죽음부터 크세르크세스를 계승한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까지는 모세에 이어서 예언자들이 13권에 자신들의 시대에 일어난 사건들의 역사를 기록했다. 나머지 4권은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인간 삶의 행위에 대한 교훈들을 포함하고 있다. 아닥사스다에서 우리 시대까지의 완전한 역사가 쓰였으나 더 앞선 시대의 기록과 동일한 신뢰를 받지 못하는데, 예언자들이 정확하게 계승

---

48) 윗글, 160 이하.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의 경전을 존중한다고 실제적으로 증명했다. 그렇게 오랜 시대가 지났지만, 아무도 감히 더하거나 제거하거나 한 문장도 바꾸지 않았다. 그 책들을 하나님의 계명으로 여기고 지키며 필요하다면 이를 위해 죽는 것은 모든 유대인들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본능이다”(1:38-42).

라일은 요세푸스가 언급한 “22권”이 구약정경이라고 여기면서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고 주장했다: 오경 5권, 예언서 13권(여호수아, 사사기와 룻기, 사무엘, 열왕기, 역대기, 에스라와 느헤미야, 에스터, 욥기, 다니엘, 이사야, 예레미야와 애가, 에스겔, 소예언서), 나머지 4권(시편, 아가, 잠언, 전도서).<sup>49)</sup> 그는 이 내용이 구약정경을 세 부류로 나누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요세푸스 시대에는 성문서의 범위가 결정되었고, 구약정경이 완성되었다고 여겼다.<sup>50)</sup>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그는 기원후 90년 얍니아 회의를 구약정경을 공식적으로 결정한 상징적 사건으로 여기면서, 적어도 기원후 100년까지는 요세푸스가 언급한 22권의 구약정경이 확정되었고, 그것은 오늘날의 구약성서와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성문서 형성 과정에 대한 라일의 연구는 성문서에 속하는 책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경전으로서의 권위를 얻었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그 타당성을 인정받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첫째로, 집회서에서 언급하는 “후대의 저서들”이나 “다른 저서들”을 세 번째 부분인 성문서의 형성과정에 있는 책들로만 여겨야 한다는 증거는 없다.<sup>51)</sup> 그 “저서들”은 성문서에 속한 책들일 수도 있지만, 오늘날 구약정경에 속하지 않는 책들을 언급할

49) 윗글, 165-66.

50) 윗글, 167. 이러한 분류는 구약정경의 세 부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율법, 전승, 시, 그리고 교훈 등 문학양식에 따라 22권을 제시한 것으로 여겨진다. J. Trebelle, 윗글, 558.

51) J. VanderKam/P. Flint, 윗글, 163.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저서들”의 언급이 구약정경이 3단계에 걸쳐서 형성되었다는 증거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단지 “오경과 예언서”만을 언급한다는 증거로도 사용할 수 있다. 즉, 이에 대한 해석이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필로의 「명상의 삶에 대해서」에서 언급하는 내용 역시 성문서의 형성 근거로 인정하기 어렵다. 이 책이 오늘날 필로가 쓴 것으로 여겨지지만, 여기에서 언급하는 내용이 성문서의 책들을 나타낸다는 증거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필로가 경전 혹은 권위 있는 책으로 인용하는 내용은 대부분 오경이지만 오늘날 구약정경 밖에 있는 책들, 예를 들면 집회서 등에서도 발견되기 때문이다.<sup>52)</sup>

둘째로, 에스드라스 이서에서 언급하는 “24권”(14:45)의 문제이다. “24권”은 구약정경을 세는 하나의 방식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오늘날의 구약정경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에스드라스 이서에 의하면, 이 24권과 함께 언급되는 “70권”도 영감으로 된 책이다. 전자는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지만, 후자는 제한된 사람들만 읽어야 한다. 이것은 모두 “94권”이 신적 권위를 지닌 책이지만, “70권”이 “24권”보다 더 권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만약 “24권”을 구약정경으로 이해할 경우, 다른 “70권”은 어떤 책들을 지칭하느냐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또한, “24권”에 어떤 책들이 포함되느냐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이 이를 정경으로 인정했느냐 하는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sup>53)</sup> 따라서 “24권”을 구약정경으로 그리고 “70권”을 다른 유대문서로 단순하게 구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셋째로, 요세푸스가 「아피온 반박문」에서 언급하는 “22권”도 구약정경의 완성을 나타내는데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sup>54)</sup> “22권”중 요세푸스가 제시하는 모세의 책 5권이 오경을 의미한다는 것은 분명한 것

52) 윗글, 165.

53) 윗글, 164.

54) “22”는 히브리어 알파벳을 세는 숫자로 구약정경을 세는 하나의 방식이다.

같다. 그러나 예언자들이 썼다는 “13권”이 구체적으로 어떤 책들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페르시아의 왕들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등이 여기에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여기에 욥기나 룻기, 애가 등이 포함되는지 그리고 사무엘과 열왕기를 두 권으로 여겨야 하는지 아니면 각각 상권과 하권으로 나누어서 네 권으로 여겨야 하는지는 학자들에 따라 견해가 다르다.<sup>55)</sup> 또한, 나머지 “4권”에 아가나 욥기 혹은 룻기 등이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일치된 견해가 없다.<sup>56)</sup> 이것은 “22권”에 대한 요세푸스의 언급이 구약정경의 범위나 완성을 나타내다기보다는 오히려 예언서와 성문서의 구분이 아직도 분명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상과 같이 성문서 형성 과정으로 라일이 제시하는 문서들은 표준이론을 지지하는 증거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오경과 예언서”가 정경으로 된지 약 250여년이 지난 후에 “성문서”가 정경으로 확정되었고 구약정경이 완성되었다는 라일의 주장은 더 이상 지지를 받을 수 없다. 이것은 구약정경이 세 단계에 걸쳐서 점차적으로 형성되었고 구약정경 39권이 유대공동체에 의해서 최종 결정되었다는 주장이 재고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5. 구약정경과 초기 기독교의 관계

라일에 의하면, 기원후 1세기말까지 형성된 구약정경인 소위 “히브리 정경”(Hebrew Canon)은 유대공동체에 의해서 온전히 보전되었고 어떠한 변형도 없이 전해졌다.<sup>57)</sup> 그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이 정경을 처음부터 채택해 사용했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칠십인역을 선호하자 히

55) 윗글, 166-67.

56) 윗글, 167.

57) H. E. Ryle, 윗글, 180.

브리 정경과 칠십인역의 구분은 모호해졌고, 외경에 속하는 책들도 교회에서 공적으로 읽혀지고 인용되어졌다고 주장했다.<sup>58)</sup> 그러다 멜리토, 오리겐, 예루살렘의 시릴, 아타나시우스, 루피누스, 제롬 등이 히브리 정경을 재생시켜서 유지하려 했다고 주장했다.<sup>59)</sup>

라일은 알렉산드리아 유대인들이 팔레스틴의 유대인들보다 더 넓은 범위의 정경을 가지고 있었다는 주장은 입증할 수 없다고 반박하면서, 오늘날의 칠십인역은 기독교인들의 자료로부터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sup>60)</sup> 오늘날의 칠십인역을 구성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이라는 것이다.<sup>61)</sup> 그는 알렉산드리아 유대인들도 히브리 정경을 경전으로 받아들였지만, 초기 기독교인들은 칠십인역을 선호했다고 추측했다.<sup>62)</sup> 이것은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칠십인역에 있는 외경을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는 칠십인역의 오경은 정확하게 번역이 되었지만, 나머지 책들은 일관성이나 정확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sup>63)</sup> 그는 칠십인역의 가치가 히브리 정경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떨어진다고 여겼던 것이다.

이상과 같은 구약정경과 초기 기독교의 관계에 대한 라일의 주장은 히브리 정경이 1세기말까지 확정되었고, 칠십인역보다 더 오래되었으며 더 신뢰 할 만하다는 가정에 근거한다. 그러나 초기 기독교회에서 외경이 없는 구약정경은 존재하지 않았고, 교회가 회의를 통해서 히브리 정경을 받아들여야 할지를 논의한 것이 4세기경이었다는 사실은 라일의 주장이 타당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sup>64)</sup> 또한, 사해사본의 발견은 칠

---

58) 윗글, 180-81.

59) 윗글, 181.

60) 윗글, 146.

61) 윗글, 169.

62) 윗글.

63) 윗글, 147.

64) J. Barton, 윗글, 102; James A. Sanders, "Canon," *Anchor Bible Dictionary*, Vol. 1 (New York: Doubleday, 1992), 846. 히브리 정경을 채택한 종교개혁자들도 성경을 출판할 때 외경도 포함시켰다.

십인역의 번역의 정확성을 라일이 주장한 것처럼 과소평가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알렉산드리아의 필로가 외경에 속하는 책들도 정경처럼 권위 있는 책으로 인용했다는 것은 알렉산드리아 유대인들이 히브리 정경에 속하는 책들만 권위 있게 받아들였다는 주장을 거부하게 한다.

## 6. 맺는 말

라일이 제시한 구약정경 형성의 표준이론은 구약정경의 형성과정을 세 단계로 여겼는데, 19세기말부터 1960년대까지 그 영향력이 매우 컸다. 이 이론은 종교개혁자들이 랍비전승을 따라 채택한 구약정경의 범위를 옹호하고 기독교에서 전통적으로 정경에 포함시킨 외경 혹은 제이경을 배제하기 때문에 개신교에서 선호되었다. 그러나 이 이론은 사해사본의 발견 이후 심각한 도전을 받았고, 오늘날은 더 이상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

사해사본의 발견은 기원후 1세기말경에도 구약의 범위나 내용이 종파에 따라 달랐고, 모든 유대인들이 받아들인 히브리 정경의 개념은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칠십인역은 마소라 본문과 다른 대본에서 정확하게 번역된 것이고, 팔레스틴 유대인들도 이를 사용했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예수님과 사도들 그리고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히브리 정경을 경전으로 받아들였지만, 초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히브리 정정보다 칠십인역을 선호하여 사용했다는 주장 역시 설득력이 없다.

기독교회 안에서 “정경”(canon)의 개념과 범위는 적어도 기원전 1세기에는 형성되지 않았다. 서방교회와 동방정교회 등의 구약 정경이 서로

---

성경의 제본에서 외경이 제외된 것은 19세기 초 미국에서부터이다. 천사무엘, 『구약외경의 이해』(서울: 동연, 2011), 37-38. 초대교회의 구약이해에 대해서는 채승희, “초대교부들의 구약성경 이해,” 『구약논단』 24 (2007/6), 52-71을 보라.

차이가 있다는 것은 초대 교회 시대부터 다양한 구약 경전의 형성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sup>65)</sup> 따라서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구약성서의 정경 개념은 유대교에서 온 것이 아니라 기독교회가 로마의 국가종교가 된 후 교회 회의를 통해서 4세기경에 도입된 것으로 추정되며 그 범위는 교회 전통에 따라 다르게 형성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오늘날 개신교회의 경우 구약정경을 39권으로 한정하는데 이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로부터 시작되었고, 이는 루터가 유대교 랍비들의 경전 전통을 수용함으로써 가능했을 것이라 여겨진다. 이것은 구약정경이 역사적으로 단계별로 형성되었다기보다는 후대에 일관되게 결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 7. 참고문헌

갓월드, 노만 K., 김상기 역, 『히브리 성서 1: 사회-문화적 연구』 (김상기 옮김),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9). 원제는 Norman K. Gottwald, *Hebrew Bible: A Brief Socio-literary Introduction* (Philadelphia: Fortress, 1985).

레빈, “약속과 구약경전,” 『구약논단』 24 (2007/6), 10-32.

민영진 외, 『구약성서개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

슈미트, 베르너 H., 『구약성서 입문 I』 (차준희/채홍식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원제는 Werner H. Schmidt, *Einführung in das Alte Testament* (Berlin: Walter de Gruyter, 1995).

채승희, “초대교부들의 구약성경 이해,” 『구약논단』 24 (2007/6), 52-71.

천사무엘, 『구약외경의 이해』 (서울: 동연, 2011).

해리슨, 롤란드, 『구약서론 I』 (류호준/박철현 옮김),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4). 원제는 Roland K. Harrison, *Introduction to the*

65) J. A. Sanders, *윗글*(1999), 20-21.

- Old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1969).
- Barthélemy, D., D. W. Goodings, J. Lust, and E. Tov., *The Story of David and Goliath: Textual and Literary Criticism: Papers of a Joint Research Venture*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86).
- Barton, John, "Canon," R. J. Coggins/J. L. Houlden (eds.), *A Dictionary of Biblical Interpretation* (Philadelphia: Trinity Press International, 1990), 101-105.
- Beckwith, R. T., "Canon of the Bible," John H. Hayes (ed.), *Dictionary of Biblical Interpretation, Vol. 1* (Nashville: Abingdon, 1999), 161-64.
- \_\_\_\_\_, *The Old Testament Canon of the New Testament Church* (Grand Rapids: Eerdmans, 1985).
- Buhl, F., *Canon and Text of the Old Testament*, tran. J. Macpherson (Edinburgh: T & T Clark, 1892; originally published in German in 1885).
- Chapman, Stephen B., "Modernity's Canonical Crisis: Historiography and Theology in Collision," M. Saebo (ed.), *Hebrew Bible Old Testament: The History of Its Interpretation, Vol. 3/1*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13),
- \_\_\_\_\_, "What Are We Reaching?: Canonicity and the Old Testament," *Word & World* 29/4 (2009/Fall), 334-47.
- Childs, B. S.,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as Scripture* (Philadelphia: Fortress, 1979).
- Coggins, R. J., *Samaritans and Jews: the Origins of Samaritanism Reconsidered* (Atlanta: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75).
- Crown, A. D., "Redating the Schism between the Judaeans and the Samaritans," *The Jewish Quarterly Review*, LXXXII 1-2 (July-

- October, 1991) 17-50.
- Davies, Philip R., *Scribes and Schools: The Canonization of the Hebrew Scriptures*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8).
- Ellis, E. E., *The Old Testament in Early Christianity: Canon and Interpretation in the Light of Modern Research* (Grand Rapids: Baker, 1991).
- Fox, Michael V., *Ecclesiastes* (Philadelphia: The Jewish Publication Society, 2004).
- Grabbe, L. L., *Judaism from Cyrus to Hadrian, Vol. 2: The Roman Period* (Minneapolis: Fortress, 1992).
- Graetz, H., *Kohelet oder der Salomonische Prediger* (Leipzig : C.F. Winter, 1871).
- Leiman, S. Z., *The Canonization of Hebrew Scripture: The Talmudic and Midrashic Evidence* (Hamden: Archon Books, 1976).
- Lewis, J. P., "What Do We Mean By Jabneh?" *Journal of Bible and Religion* 32 (1964), 125-32.
- Martin, S., *An Introduction to Judaic Thought and Rabbinic Literature* (Westport: Praeger, 2007).
- Neusner, Jacob, *The Mishnah: A New Translatio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8).
- Purvis, James D., "The Samaritans and Judaism," R. A. Kraft and G. W. E. Nickelsburg (eds.), *Early Judaism and Its Modern Interpreters* (Philadelphia: Fortress, 1986), 81-91.
- \_\_\_\_\_, *The Samaritan Pentateuch and the Origin of the Samaritan Sect*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8).
- Ryle, H. E., *The Canon of the Old Testament: An Essay on the Ground Growth and Formation of the Hebrew Canon of Scripture* (London:

- Macmillan, 1892).
- Sanders, James A., "The Scrolls and the Canonical Process," Peter Flint/James C. VanderKam (eds.), *The Dead Sea Scrolls After Fifty Years: A Comprehensive Assessment, Vol. 2* (Leiden: Brill, 1999), 1-23.
- \_\_\_\_\_, "Canon," *Anchor Bible Dictionary, Vol. 1* (New York: Doubleday, 1992), 837-52.
- Sundburg, Jr., A. C., "The Old Testament of the Early Church," *Harvard Theological Review* 51 (1958), 205-26.
- \_\_\_\_\_, *The Old Testament of the Early Church*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4).
- \_\_\_\_\_, "The "Old Testament": A Christian Canon," *Catholic Biblical Quarterly* 30/2 (1968), 143-55.
- \_\_\_\_\_, "The Bible Canon and the Christian Doctrine of Inspiration," *Interpretation* 29 (1975), 352-71.
- Trebolle, Julio, "Canon of the Old Testament," *New Interpreter's Dictionary Bible, Vol. 1* (Nashville: Abingdon, 2006), 548-63.
- Ulrich, Eugene, *The Dead Sea Scrolls and the Origins of the Bible* (Grand Rapids: Eerdmans, 1999).
- van der Toorn, Karel, *Scribal Culture and the Making of the Hebrew Bibl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09).
- VanderKam, James/Peter Flint, *The Meaning of the Dead Sea Scrolls: Their Significance for Understanding the Bible, Judaism, Jesus, and Christianity* (New York: HarperCollins, 2002).
- Wildeboer, G., *The Origin of the Canon of the Old Testament*, tran. B. W. Bacon (London: Luzac and Co, 1895; originally published in German in 1889 for the 1st edition and in 1891 for the 2nd edition).



검색어

구약성서

구약정경

얍니아 회의

성문서

정경화

## Reconsidering the Process of Making the Old Testament Canon: Focusing on its Standard Theory

Samuel Cheon, Ph.D.

Professor, Department of Christian Studies

Hannam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consider the process of forming the Old Testament. To do so, it critically reviews the so-called 'the standard theory of the Old Testament canonization,' which was suggested by H. E. Ryle in the late 19th century, considering the recent scholarly views of the Hebrew Bible's formation. Ryle's theory of its canonization, which is still being taught in theological schools, was very influential in the field of the theological education until the 1960s. However, having studied the Dead Sea Scrolls discovered in the 1947-1956, scholars seriously challenged the theory as well as the insistence which the formation of the Hebrew canon

www.kci.go.kr

was completed in Jamnia Council in which Jewish rabbis met in 90 C.E.

This study firstly considers the theory of Jewish Jamnia Council, which was suggested by the Jewish scholar H. Graetz in the 19th century, and suggests that the Old Testament which we have as the present form was not completed at best until the first century. We cannot find any evidence of the argument in any Jewish and Christian literature. Secondly, there is no evidence that the canonization of the Torah and the Prophets were completed in the second century B.C.E. The Dead Sea Scrolls shows that the Jewish sects had different opinions among them about the concept and limit of the Prophetic Books. Thirdly, there is no evidence that the early Christianity did receive the completed Hebrew canon from the Jewish community. Rather it used the Septuagint as their Scripture, without having strict concept of canon.

## Key Word

Old Testament

Old Testament Canon

Jamnia Council

The Writings

Canonization

- 투고일: 2014년 1월 01일
- 심사일: 2014년 1월 20일
- 게재 확정일: 2014년 2월 01일

[www.kci.go.kr](http://www.kci.go.kr)